

[자동차]

현대차그룹 대미 로봇 투자 증액 Comment

최태용 자동차·2 차전지 02-709-2657 tyc@ds-sec.co.kr

2025.08.27

현대차그룹의 대미투자 50억달러 증액으로 3만대 규모 로봇 공장 건설 신규 발표

한미 정상회담 당일(26일) 현대차그룹은 대미(對美) 미래산업 투자액을 50억달러(약 7조원)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발표했던 향후 4년 간(~2028년)의 대미 투자액 210억달러 대비 +24% 증가한 규모다. 이번 투자 확대는 3만대 규모의 로봇 공장 건설이 목적이다. 미국 현지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로봇개), 아틀라스(휴머노이드), 스트레치(물류 자동화)를 생산할 계획이다. 2021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후 약 7년만인 2028년 상용화가 예상된다. 연말 아틀라스의 조지아 메타플랜트 투입 외 그룹사 로보틱스 가시화의 사례로서 의의가 크다.

연말부터 아틀라스의 메타플랜트 투입으로 실제 효율화 성과 확인되며 확산 가속화 기대

현대차그룹은 10월부터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에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투입할 예정이다. 성과에 따라 현대차 울산 EV 공장과 기아 광명 EVO 플랜트에도 투입될 수 있다. 첫 수행 직무는 파트 시퀀싱(Part Sequencing)으로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사전 업무다. 2026년부터는 용접·도장 공정 등 보다 위험한 작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차량 조립라인의 40%를 로봇화하고 로봇 1대 당 인력 1.5명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메타플랜트 기준 1,300여명/10만대 생산인 점 감안 시 Full CAPA(50만대) 기준 최소 약 6,500명이 필요하며 40% 로봇화 목표 및 인력 대체 효율(1:1.5)을 단순 적용 시 약 1,700여대가 필요하다. 스팟 판가를 감안해 약 1억원을 판가로 적용 시 1,730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만약 현대기아차 글로벌 공장에 전부 투입 시 700만대 CAPA 기준 아틀라스 2.4만대가 필요하며 이는 2.4조원 매출 규모다. 이는 완성차 공장 기준이기 때문에 계열사 및 협력사, Non-Captive향으로의 추가 공급에 따른 매출 확대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판매된 로봇에 대한 AS부품 매출도 지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연간 AS부품 수요는 서비스 로봇 기준 판가 대비 약 10~20%로 파악된다. 이에 앞선 2.4조원 매출에 대해 연간 2,400억원 이상의 로봇용 AS부품 수요가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판매 계획이나 밸류체인이 확인된 바 없는 상황에서의 추정치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 로보틱스 가시화 모멘텀은 이제 시작, 시선은 CID로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사업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2028년 양산을 감안 시 2H25에는 양산 스펙, 조립 프로세스, 협력사 선정 등이 확정되어야 한다. 2026년~2027년에는 파일럿 라인 가동이 필요하고 경험적으로 로봇과 같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결합 제품은 최소 2~3년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 대규모 투자 집행은 일반적으로 3년 전에 결정되며 이번 대미 투자 증액 발표도 이 로드맵에 부합한다. 대체 효율 목표 등 일부 수치도 공개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PoC→파일럿 단계로의 진입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2028년 양산계획을 위해 이번 하반기가 로보틱스 사업 가시화의 적기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정책적 이슈로 협력사 기반 산업들의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로봇 자동화는 기업에게 분명 매력적인 방안으로 부각될만한 환경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커버리지 종목 내 차량용 모터 양산 경험을 보유한 현대모비스와 그룹사 SI 역량을 바탕으로 스마트팩토리 관제 SW 및 CSP 역량을 보유한 현대오트모에 대한 로보틱스 사업 역할 부여가 기대된다.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과 실적 향상을 예상한다. 현대모비스 CID(8/27)나 현대차 CID(9월 중순)를 통한 가시화를 기대한다.

표1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구조

(%, 십억원)	지분율	지분가치
보스턴다이내믹스		2,407
HMG Global	54.7	1,316
현대차	49.5 (27.1)	652
기아	30.5 (16.7)	402
현대모비스	20.0 (10.9)	263
현대글로비스	11.0	265
경의선	21.7	522
소프트뱅크	12.6	303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주: 지분율 내 괄호는 HMG Global 지분율을 감안한 전체 대비 지분율

표2 완성차 공장 아틀라스 예상 투입대수 추정

	단위	메타플랜트	글로벌	비고
생산대수	(만대)	50 만대	700 만대	
필요인력	(명)	6,500	91,000	글로벌 인력수요는 메타플랜트 인력 단순 배수 적용
대체목표	(%)	40	40	초기 목표치 단순 적용
대체율		1.5:1	1.5:1	초기 목표치 단순 적용
예상 투입대수	(대)	1,733	24,267	
단가	(백만원)	100	100	보스턴다이내믹스 SPOT 가격 적용
BD 매출액	(십억원)	173	2,427	보스턴다이내믹스 매출액 = 평가*예상 투입대수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표3 아틀라스향 액추에이터 예상 실적 추정 (현대모비스)

	단위	메타플랜트	글로벌	비고
BD 제조원가	(십억원)	173	2,427	평가 대비 마진 0% 가정 (평가=원가)
1) 액추에이터 매출	(십억원)	61	849	테슬라 옵티머스 원가 비중 추정치 적용
비중, %	(%)	35	35	
서보모터	(십억원)	36	510	
비중, %		60	60	테슬라 옵티머스 원가 비중 추정치 적용
감속기	(십억원)	24	204	
비중, %		40	40	테슬라 옵티머스 원가 비중 추정치 적용
2) 배터리팩 매출	(십억원)	26	364	
비중, %	(%)	15	15	
기존 '25 연간 매출	(십억원)	61,323	61,323	현대모비스 25F 매출액 컨센서스
(+)예상 매출 증감	(십억원)	62	874	
증감률	(%)	0.10	1.42	
기존 '25 영업이익	(십억원)	3,511	3,511	현대모비스 25F 영업이익 컨센서스
(+)예상 이익 증감	(십억원)	5	69	Yaskawa Electric, Mabuchi Motor 의 모터 사업 OPM(10%) 참고
증감률	(%)	0.14	1.97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표4 로봇 AS부품 예상 실적 추정 (현대오토에버)

	단위	메타플랜트	글로벌	비고
예상 AS 매출	(십억원)	17	243	로봇 판가*유지보수율 적용
유지보수율	(%)	10	10	서비스용 로봇의 연간 유지보수액/판가=10~20% 참고
예상 영업이익	(십억원)	2.2	30.3	
예상 OPM	(%)	12.5	12.5	현대모비스 AS 사업부 OPM 25%에 50% 할인 적용
기존 '25 연간 매출	(십억원)	4,124	4,124	현대오토에버 25F 매출액 컨센서스
(+)예상 매출 증감	(십억원)	17	243	
증감률	(%)	0.4	5.9	
기존 '25 영업이익	(십억원)	252	252	현대오토에버 25F 영업이익 컨센서스
(+) 예상 이익 증감	(십억원)	2	30	
증감률	(%)	0.9	12.1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표5 로봇 SI(유통 포함) 예상 실적 추정 (현대오토에버)

	단위	메타플랜트	글로벌	비고
예상 SI 매출	(십억원)	182	2,548	
로봇 매입	(십억원)	173	2,427	
용역 마진	(십억원)	9	121	
예상 영업이익	(십억원)	9	121	로봇 판가 대비 턴키 형태 SI 사업 OPM 5% 적용
예상 OPM	(%)	4.8	4.8	
기존 '25 연간 매출	(십억원)	4,124	4,124	현대오토에버 25F 매출액 컨센서스
(+)예상 매출 증감	(십억원)	182	2,548	
증감률	(%)	4.4	61.8	
기존 '25 영업이익	(십억원)	252	252	현대오토에버 25F 영업이익 컨센서스
(+) 예상 이익 증감	(십억원)	9	121	
증감률	(%)	3.4	48.2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